



산업체와

환경보전

〈이 세 훈〉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그 오염업체가 더 이상 발뺌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환경오염산업체가 치뤄야하는 댓가 - 이를테면 부정적인 여론, 벌금을 포함한 행정적인 제재 및 가용자원의 낭비등 - 는 매우 크다. 반면에 환경오염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업체는 경제적인 이익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주와 환경의 도전”이라는 ILO의 보고서에서 오늘날 문제점이 있다고 거론되는 산업체의 대부분은 환경오염업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제철, 중화학 및 비철금속업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업체들의 문제점은 그 생산품목의 수요감소가 아니라 오염을 최소화한 기술을 이용한 좀더 효율적인 경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최근 미국에서 2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은 경비와 원료를 투입하여 고도의 기술과 품질관리속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윤을 더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기술이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혹은 자원낭비와 같은 환경관련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 문제해결방향은 간단하다. 즉 이 보고서에서 그 방안으로 환경적으로 청결한 기술(EST)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의 최소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EST는 자금의 추가부담보다는 경비절감과 이익증대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환원하면 오염예방경비(Pollution Prevention Pays)가 된다. 이 3P의 개념은 개도국 및 선진국에서 점점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3M사에서는 온갖방법을

동원하여 12만 5천톤의 대기오염물질과 만 2천톤의 쓰레기 방출분량을 감소시켜 연간 1억불 이상의 경비와 23만 바レル의 석유소비를 절감하였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도 3P계획을 실천중이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엄격한 오염방지책에 직접 관여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0년에 시작된 자동차의 경우로서 일본차는 연료소모량과 대기오염물질의 방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그 국제경쟁력을 배가시켰다.

반면에 이로 인한 불안한 요소도 없지않았다. 중공업분야의 오래된 공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생겼다. 그러나 일본, 노르웨이, 미국등 선진국들의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 여러가지의 경비, 새로운 산업구조적인 수요 및 관련 기구와 직종의 출현등과 같은 생산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미국에서는 1970~85년간동안에 환경관련직 종근로자로 52만 4천명이 추가채용되었다. 화학물질의 누출같은 것으로 인한 재해예방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그 변화의 과정이 어려울 뿐이다.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경영관리가 진행중에 있다. ILO는 이러한 활동을 보조하고 있는데 1976년에 ILO가 시행한 경영자훈련에는 수천명의 관리자가 참여하였다. ILO에서는 또한 개도국의 경영관리자들을 위한 훈련교재를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5가지로 되어 있다.

- i) 인간환경의 기능과 그 이용
- ii) 환경계획 및 관리
- iii) 환경관련 법규 및 행정
- iv) 경영자조직과 환경도전
- v) 환경오염예방경비

이상과 같은 것의 목적은 경영관리자로 하여금 환경관련법규가 그들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환경학자들이 산업체의 적이라는 개념대신에 좀더 긍정적인 자세를 고취시키는데 있다. 여기에는 여러 관련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반응이 수동적이거나 혹은 “속죄양”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긍정적인 면에서볼 때 이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사적인 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된다.